

손흥민 '위대한 토트넘 7인' 우뚝



9개 시즌 동안 450게임에 출격 현재 7위... 내년 계약까지 5위 가능 구단 최다 출전은 854경기 페리맨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사진)의 450번째 경기 출전을 조명했다.

토트넘은 6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사우샘프턴전을 통해 특별한 클럽에 가입했다. '위대한 7명'에 합류했다"며 "구단 통산 450경기에 출전한 7명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레버쿠젠(독일)에서 영입된 손흥민은 9시즌 동안 놀라운 활약을 펼쳤고, 토트넘 입단 10주년을 앞두고 계속 날아오고 있다"며 "입단 후 한국의 슈퍼스타는 축구계에서도 세계적 아이콘이 됐다"고 해설했다.

이날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 2024-2025 EPL 31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후반 12분 교체될 때까지 57분간 활약하며 3-1 완승에 기여했다.

풋볼런던도 "손흥민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경기를 고려해서 1시간을 채우기 직전에 교체됐다"고 해설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와 스코어도 손흥민에게 6.7의 무난한 평점을 줬다.

사우샘프턴은 2022-2023시즌에도 가장 먼저 강등을 확정했다가 1시즌 만에 승격해 EPL로 돌아왔으나 새 시즌에는 다시 챔피언십에서 경쟁하게 됐다.

사우샘프턴은 이날 패배로 EPL 역사상 가장 빨리 강등을 확정된 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세웠다.

1994-1995시즌 입스위치, 2007-2008시즌 더비 카운티 등 6경기를 남기고 강등이 확정된 팀은 여럿 있었지만 7경기는 사우샘프턴이 최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한 손흥민

은 후반 12분 교체될 때까지 57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득점포는 가동하지 못했지만 전반 13분 왼 측면 깊숙한 지역으로 쇄도한 제드 스펜스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해 선제 득점에 이바지했다.

득점포는 가동하지 못했지만 전반 13분 왼 측면 깊숙한 지역으로 쇄도한 제드 스펜스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해 선제 득점에 이바지했다.

토트넘에 따르면 구단 역사상 최다 출전 선수는 스티브 페리맨으로 854경기를 뛰었다.

게리 마버트(611경기), 펫 제닝스(590경기), 시릴 놀스(506경기), 글렌 호들(490경기), 테드 디치번(452경기)이 뒤를 잇는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6년 여름까지로, 새 시즌에도 주전으로서 대부분 공식전을 소화한다면 5위 호들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호들과 격차는 40경기다.

앞으로 계약 상황에 따라 '토트넘 통산 500경기 출전'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토트넘은 "2019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을 경험했고, 2020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EPL 골든 부트(득점왕) 수상자로 기록됐다"며 "손흥민은 구단과 함께하면서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전했다.

스펜스의 컷백을 브레넌 존슨이 완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토트넘이 기선을 제압했다.

영국 풋볼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6을 매기면서 "스펜스와 연계 작업으로 브레넌 존슨의 첫 골이 나오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거나 지친 모습이 보이는 장면이 없었지만 손흥민을 후반 12분 벤치로 불러들였다.

토트넘은 나흘 뒤인 10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을 앞두고 있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축들의 체력을 고려해 교체 자원들을 일찍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손흥민이 6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 EPL 홈 경기에 출전해 토트넘 소속으로 450번째 공식 경기 출전 기록을 남겼다. AP=연합뉴스



2G 연속 멀티히트 MLB 2루타 1위 '바람의 행진'

이정후 7경기 연속 안타... 타율 0.344·출루율 0.400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7경기 연속 안타와 2경기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행진을 이어갔다.

시즌 6번째 2루타를 쳐 올 시즌 메이저리그(MLB) 2루타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정후는 7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MLB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으로 활약했다.

지난달 30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부터 시작한 연속 안타 행진은 7경기째로 늘었다.

시즌 3번째이자 2경기 연속 멀티히트

이정후는 올 시즌 출전한 8경기에서 모



두 출루하는 정교함을 과시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21에서 0.344(32타수 11안타)로 올랐다. 출루율은 0.400이다.

1회 첫 타석에서 2루타가 나왔다. 이정후는 1회 2사 주자 없는 상황, 시애틀 선발 브라이언 우의 시속 156km의 빠른 공을 공략해 3루수를 넘어 좌선상으로 흐르는 2루타를 쳤다.

시즌 6번째 2루타를 친 이정후는 2루타 5개를 친 요나단 아란다(탬파베이 레이스), 카일 터커(시카고 컵스)를 제치고 2루타 부문 1위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두 번째 타석에서 멀티 히트를 완성했다.

4회 무사 1루에서 이정후는 우의 시속 155km 직구를 받아쳐 좌전 안타를 쳤다.

이정후가 기회를 이어간 덕에 샌프란시스코는 역전에 성공했다.

페굴라, 女테니스 찰스턴오픈 단식 우승

제시카 페굴라(4위·미국·사진)가 여자로테니스(WTA) 투어 크레디트원 찰스턴오픈(총 상금 106만4510달러) 단식 정상에 올랐다.

페굴라는 7일(한국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소피아 케닌(44위·미국)을 2-0(6-3 7-5)으로 물리쳤다.

3월 ATX오픈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은 페굴라는 우승 상금 16만4000달러(약 2억4000만 원)를 받았다.

WTA 투어 단식에서 통산 8번째 정상에 오른 페굴라는 클레이 코र्ट 대회에서는 처음 우승했다. 8

차례 우승 가운데 6번을 하드코र्ट에서 일궈냈고, 클레이와 잔디코트에

서 한 차례씩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페굴라는 어머니 킴 페굴라가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사연으로도 잘 알려졌다.

2023년 서울에서 열린 WTA 투어 코리아오픈에서 우승했고 한국 대회 출전 당시 자신을 '하프 코리아'라고 소개했다.

그의 부모 테리 페굴라, 킴 페굴라는 미국프로풋볼(NFL)과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버펄로 구단주일 정도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염이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